

- 주요 뉴스: 미국 '22년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여부에 관심
 - IMF 총재, 금년 세계경제의 1/3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
 - 중국 인민은행, 내수 촉진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이 영향

주가 하락[-0.1%], 달러화 약세[-0.8%], 금리 상승[+1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기 불확실성 및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매도세 강화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고금리 유지 예상 등이 반영
독일은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17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3% 하락, 한국 CDS 상승

		12/30일	12/23일	전주말대비			12/30일	12/2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39.5	3,844.8	-0.14%	국채 금리 10y	미국	3.87%	3.75%	13bp
	유럽	424.89	427.45	-0.60%		독일	2.57%	2.40%	17bp
	중국	3,089.3	3,045.9	1.42%		영국	3.67%	3.64%	4bp
	일본	26,095	26,235	-0.54%	CDS 5y	한국	55bp	54bp	1bp
	한국	휴장	2,313.7	-3.34%		중국	75bp	74bp	1bp
환율	달러지수	103.52	104.31	-0.76%	위험 지표	EMBI+	375	374	1bp
	유로화	1.0705	1.0617	0.83%		VIX	21.67	20.87	3.83%
	엔화	131.12	132.91	1.37%		WTI유	80.26	79.56	0.88%
	위안화	6.8986	6.9900	1.32%	원자재	구리	381.1	380.3	0.20%
	원화	휴장	1,280.8	1.29%		금	1,824.0	1,798.2	1.4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및 환율 변화는 12/29일 종가를 반영.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2년 12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여부에 관심

- 1/6일 '22년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계획.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 우위 여건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계소비 약화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둘 전망
- 비농업 일자리는 18.0~20.0만건 늘어 전월(26.3만)에 비해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견조한 고용여건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 임금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전월 대비 소폭의 하락(각각 5.1%→4.9%~5.0%, 0.6%→0.3%~0.4%)이 예상되나 이 또한 가계소비 및 물가상승 압력 약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미지수
- 고용여건이 악화되고는 있으나 연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매우 천천히 진행 중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현 노동시장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Bloomberg Economics의 Anna Wong)
- 다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매우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긴축 효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준의 하락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
- 한편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준이 상반기에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5.00%~5.25%까지 높이고, 하반기에는 2회 정도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져 연말에 4.50%~4.7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금년 세계경제의 1/3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금년에 미국, EU, 중국 등 이른바 세계경제의 빅3가 모두 경기둔화를 지나면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 미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시장 영향 등으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으나 EU의 경우 회원국 가운데 절반이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로 단기적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충격을 맞을 것으로 전망. 한편 OECD는 각국의 연기금들이 그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높였는데, 이로 인해 신속한 현금화가 어려워져 강력한 유동성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

- 라가르드 총재는 현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2%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 다만 정책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경미한 수준으로 단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민은행, 내수 촉진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

- 통화정책은 국내수요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성장·고용·물가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피해가 큰 산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의 부양책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첨언
- 한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신탁부문 관련 규제 강화 초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그림자 금융의 위험 축소에 나설 방침. 특히 투자신탁업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감독에 나서겠다고 부연

■ 중국 '22년 12월 제조업 PMI, '20년 2월 이후 최저. 코로나19 영향 등이 반영

- 국가통계국의 '22년 12월 제조업 PMI는 47.0을 기록, 전월(48.0) 및 예상치(48.0) 하회. 작년 12월 초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후 감염이 확산되면서 제조업 활동에도 많은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도 제조업 활동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같은 달 서비스 PMI 역시 41.6으로 '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춘절 이전까지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외출과 여행을 꺼릴 수 있어 서비스활동도 부진할 소지(Capital Economics의 Mark Williams)

■ 일본은행, '23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목표(2%)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

- 닛케이 등은 일본은행이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임금상승이 가시화되고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된다면 초완화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평가. 아울러 전문가들은 금년 초 본격화되는 기업의 연봉협상을 통한 임금상승 수준이 초완화정책 중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22년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3년 세계경제 전망,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을 예상 - Financial Times

(FT writers' predictions for the world in 2023)

- FT의 분석가들은 금년 세계경제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 ① 금년 러·우 전쟁의 평화협정 혹은 휴전 가능성은 낮은 편.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 일부를 지배하고 있는데 양국 모두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며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또한 러시아 정부는 장기전을 대비를 강조
 - ② 금년 내 연준의 금리인하는 어려울 전망. 시장에서는 4/4분기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파월 의장은 과도하게 빠른 금리인하를 반대 ③ ECB는 유럽 주변국 채권 스프레드 통제를 위해 기존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또는 통화긴축 완화를 선호할 소지. 파급경로보호장치(TPI)는 긴축정책 및 경기침체 관련 실행기준이 모호한 단점이 내재
 - ④ 중국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에 따른 혼란이 점차 감소할 전망. 반면 당국의 인프라 중심의 경기부양책,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를 기대 ⑤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제로에 가까워져 에너지 부족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

■ 일본 금융시장, 통화정책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불확실성 증가 - Financial Times

(Uncertainty over Bank of Japan casts a shadow over markets)

- 차기 일본은행 총재 확정이 늦어지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 만일 신임 총재가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변화 관련 신호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YCC) 포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을 부인. 아울러 기시다 정부의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장의 통화정책 전망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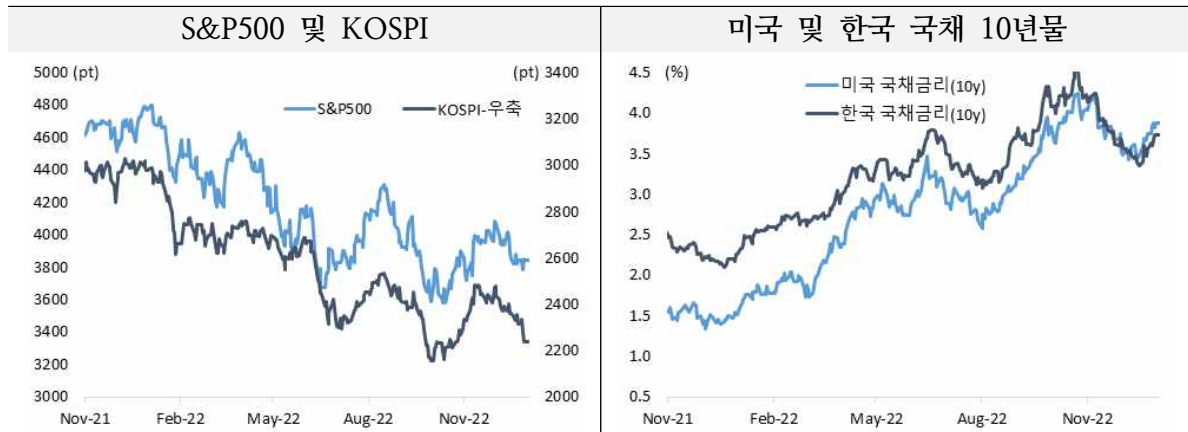
■ 글로벌 무역, 탈세계화가 아닌 구조적 개편으로 진행 - WSJ

(Global Trade Is Shifting, Not Reversing)

- 작년 러·우 전쟁, 마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충격 등으로 일부에서는 글로벌 무역의 탈세계화를 전망.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반면 베트남 등 여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면서 전체 수입량은 동일
- 또한 러·우 전쟁 속 유럽의 에너지 독립은 실현되지 못한 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및 유럽의 에너지 수입경로만 개편되는 상황이 발생. 이를 고려할 때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를 반영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 요구** - Financial Times
(World must be vigilant amid China's Covid reopening)
 - 전세계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함께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증가. 이에 이와 관련된 정보 공유가 중요
 -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재개하면서 국가별로 산발적으로 대응. 그러나 제2의 팬데믹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
- **향후 세계경제, 미·중 경쟁상황에 크게 좌우될 전망** - 블룸버그
(US-China Rivalry May Shape 2023 for the World)
- **금년 미국 국채수익률, 노동시장 및 고물가 둔화 등으로 하락세 지속 예상** - 블룸버그
(Treasures Post Biggest Annual Loss Ever as Inflation Takes Toll)
- **미국 주택시장 문제 해결, 규제완화보다 공급확대가 효과적** - 블룸버그
(The US Can Solve Its Housing Crisis. It Just Needs to Start Build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